

2021  
학년도

# 백인대장 입시수기

[www.e100in.com](http://www.e100in.com)



'Quality Education Creation'

# 서울대 경영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첫번째는 아침에 졸려서 집중이 잘 안된 것! 고3때 가장 심했는데 이럴 땐 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물을 머금고 있는 방법을 애용했습니다.

두번째는 비교과로 시험이 끝났는데도 놀지 못한 것! 나의 운명이거나 받아들이고 그냥 짜증내며 하나하나 해치운다는 생각으로 극복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고1 → 고2 → 고3으로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성적 상승을 이룬 것입니다.

입시는 장기전이기에 때문에 초반부터 달리는 것이 아닌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공부를 했고 공부도 더 많이 함으로써 성적이 계속 올랐던 것이 수시에 있어서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했지만 그것도 고2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수학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바짝 열심히 공부하는 수학 집중 학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기 이후에 어느정도 수학 실력이 안정화되면 나중에는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시키는 대로만이라도 따라간다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숙제가 많다고 투덜대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실력은 분명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대장에서 3년 공부했던 것 중에 필요 없거나 시간 낭비였던 것도 없었다는 것을 성적표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숙제 꼬박꼬박하고 수업 열심히 들으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수시, 정시 모두 챙길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고 대학 가는 편한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 3년이 힘들 수도 있지만 결과는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세요! 특히 수학 버리지 말고 백인대장에서 공부해서 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대 경영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슬럼프 올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놀러가거나 운동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고 나니까 공부 의욕도 돌아오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구체적인 계획 + 꾸준한 실천 : 플래너를 직접 만들어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실천하면서 목표를 하나둘씩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의 관리와 조언이 도움되었습니다.  
나태해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관리를 꼼꼼히 해 주셨고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으로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작은 목표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1- 등급 경쟁이 치열해서 내신 따기가 힘들었다 →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할 공부만 제대로 챙기기!

2- 코로나로 세특 / 자율동아리 챙기기 어려웠다 → 따로 학교 쌤들께 부탁하기!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사실 저는 지균으로 대학을 갔는데, 지균으로 갈 내신 성적이 아니었어요ㅜㅜ

그래도 그냥 질러봤는데 운 좋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원하는 대학, 과가 있다면 너무 망설이지 말고 한 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문제 최대한 많이 풀기\*\* -> 학원에서 쌤들이 주시는 거 그냥 다 푸세용~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자료들이 엄청 많고 자체제작 문제, 모의고사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쓴소리 해주시는 것도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코로나 19로 많이 힘드실텐데... 특히 수시 챙기시는 분들은 많이 막막할 것 같아요ㅜ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다면 꼭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거예요. 화이팅!!

# 연세대 융합인문사회학부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고1~고2 때는 단순히 성적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슬럼프였고 이는 공부를 보다 더 열심히 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3이 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하는 길이 맞는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슬럼프에 빠지더라구요. 이럴 땐 눈 앞에 있는 공부부터 해치운다는 느낌으로 하루 이틀정도 해 나갔어요. 슬럼프는 그리 길지 않고 그 시간마저 공부로 채운다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랍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 1- 학종 관련 : 진로에 관련된 활동, 독서, etc 닥치는 대로 하기!! 의미부여는 원서, 자소서 쓸 때 하는 것이므로 학종은 매순간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 2- 수학 관련 : 내신 만큼 한 과목, 파트에 대해 가장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순간이란 없어요. 내신 때 고난이도 문제까지 익숙해지도록 풀면 수능 공부할 때도 훨씬 수월하답니다.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 1- \*\*매일 매일 하는 것!! 사탐(또는 과탐)의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수능 파이널 때도 매일 수학은 2시간씩 했어요. 수학도 감! 입니다.
- 2- 오답은 꼭 고칠 것 (오답 노트는 귀찮아서 만들지 않았지만, 한 번 짚은 꼭 다시 풀기)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이 내주신 숙제 : 버릴 문제가 없어요ㅠㅠ 제발 숙제만큼은 꼭 풀어주세요. (문제 퀄리티, 양도 버겁다 하더라도 필요하니까 내주시는 거!!)  
백대 모고 : 적어도 수능 한 달 전부터는 4~5회 정도 볼 것!! 실전 연습, 시간 분배는 연습이 필요했기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1년만 고생해서 원하는 대학 자부심 갖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 연세대 컴퓨터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실전에서 문제 풀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한다는 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항상 매 시험마다 떨어다 보니 본 실력보다 못 본다는 느낌이 항상 들었고 어이없는 마킹 실수도 자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청심환을 먹어 보기도 했고, 시험날 반병씩 먹으며 시험 봤더니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정진 영어학원 선생님께서 호흡법도 알려주셔서 그것도 잘 써먹었어요!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저는 학종으로 간 경우이다 보니 내신의 중요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1학년 때 타 학원을 다니다가 백인대장을 비롯한 많은 다른 학원들(국어, 영어, 과학 등)로 옮긴 뒤 성적이 쑥 올라서 내신이 상승세라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 비교과도 틈틈이 챙기며 생기부 관리를 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또 외부 활동으로 캠프 관련 캠프를 갔었는데 자소서에 잘 녹여낸 점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 3. 수험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일단 양을 많이 하는 거(?) 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내주는 숙제는 항상 다 해 가려고 해야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다면 (또는 몰라서 별표 친 문제) 나중에 꼭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원래는 학원에서 설명 듣고 이해했다 싶으면 다시 안보는 편이었는데 복습하는 습관을 들인 뒤부터 확실히 실력이 늘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정시 준비와 내신 준비를 모두 잘 해준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특히 문제량이 워낙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량도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고3때 매주 백인대장 모의고사로 시간 분배 조절 및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백대 쌤들 모두 다 좋은 분들 이라서 학원 오는 게 즐거웠어요. 정용현쌤, 강신쌤, 송영주쌤, 김오석쌤 모두 너무너무 좋았어요^^♡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개인적으로 수험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전 스트레스 받으면 집중 못하는 타입이라 더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요..ㅋㅋ 전 쉬는 시간 10분마다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자제 못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학교가 3시 30분에 끝나서 4시에 집 오면 항상 낮잠 자고 학원에 갔어요! 맑은 정신으로 수업 듣는 것은 중요하니까 추천해요!! 모두들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파이팅~~!!

#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12월부터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이 6,9평 전후로 느낄 번아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 과목에 한 시간 이상 투자하는 것도 힘들었고, 억지로 해봐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가 안되면 수학 3점문제나 탐구 기본개념문제로 바로 돌렸습니다. 개념 복습도 할 수 있고, 워낙 쉬운 문제들이라 보니 부담이 없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같은 것을 풀면, 어차피 정해진 시간동안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어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예비 고3 시기에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백야에 있었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시기에 최대한 많이 해 두었던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월 이후부터의 공부는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3월까지 해 놓은 공부를 다지는 느낌입니다. 팔팔할 때 많이 해 놓으세요. 그리고 수시의 경우 학종, 교과부터 각 학교의 수능 최저, 추합(충원율), 정시의 경우 누백, 표본, 표점... 등 개념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목표하는 학과를 정해두고 '난 올 1등급이 목표야' 하는 것 보다는 '원점수 몇 점이면 가능하더라'를 척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의견이 갈릴 수도 있지만 저는 해설지 보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넘겨짚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은 맞았는데 정작 풀이에 비약이나 오류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매번 맞으면 능력이겠거니 하겠지만, 수능같이 한번으로 결정되는 시험에 그런 태도로 임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지를 보면서 오류도 잡아낼 수 있고, 가끔씩 생각하지 못한 방향의 풀이를 배워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대할 때 이해가 도저히 안된다 하면 그 유형을 외워서 기계적으로 푸는 것도 항상 고려하세요. 쪽팔려 하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당당하게 84점 맞을 바엔 쪽팔리게 92점 받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열정이 과다한 수준의 쌤들. 저는 '오석쌤이 자신의 남아있는 성대와의 여생을 즐기기 위해 은퇴하셔서 유감'이라는 소식을 들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대결절 안오는 게 신기할 정도... 영주쌤도 마찬가지로요. 질문이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덕분에 괴롭히는데 죄책감이 덜합니다. 그냥 하라는 거만 잘 하세요. 그것만 소화해도 성적은 보장됩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만 수능은 일단 여러분의 과정에 관심이 없어요, 결과가 안 나오면 과정을 주목해주지 않습니다. 주변 신경 쓰지 말고 수만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비도덕적인 거 말고...) 최상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고 판단 되는데로 하세요.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정신승리도 좋습니다. 겸손 같은 거 보다는 자신감을 일년 내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감 없어서 긴장하고, 본 실력대로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 육군사관학교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책감에 빠졌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분명 저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더 잘 나온다던가 같은 양의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내 점수가 더 잘 안나온다던가 하는 상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한참 울고, 그날이 시험이 끝난 날이든 언제든 다시 펜을 잡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방법이 잘못되어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해봤자 내 정신건강만 해롭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 1학년~2학년 1학기까지는 정말 계속 놀았습니다. 정시 공부라는 개념이 없었고 시험 한 달 전부터 내신 대비를 하는 것이 당시의 제게 있어 공부의 전부였습니다. 목표가 생기고 난 후 여름방학&2학년 2학기부터는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그 때 내신을 버리고 (어차피 겨우 인서울 할 내신이었습니. 목표한 대학은 불가능) 정시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나는 정시파일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중간한 3~5등급 성적=제 성적인 친구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정시공부 한다고 내신이란 비교과 다 버려서 잘 된 사람 없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내신 준비, 비교과가 쓸모 없어보여도 결국에는 다 도움이 됩니다. 이 말도 와닿지는 않겠지만 '정시파' 친구들 중 잘 된 사람이 없습니다. 내신 성적은 정시 성적으로 이어지고, 비교과 활동은 추억이 됩니다. 학교 다닐 수 있는 시간을 정시 준비 하겠다는 핑계로 자면서 낭비하지 마세요.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오답노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무엇을 틀렸는지 적고 다시 푸는 것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계산실수가 정말 많은 편이어서 "다음에 실수 안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오답노트를 거의 안하다시피 했습니다. 수능 약 70일 전쯤 10월? 9월? 모의고사에서 4등급을 받고 영주쌤이랑 상담하다가 영주쌤께서 단원별로 틀린 문제 이유 적어서 모아보고 오답노트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그걸 수능 일주일 전까지 하고 새로운 문제는 일주일에 한번 보는 모의고사와 백대 숙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할 때 실수가 많이 나는지, 어떤 부분(단원)이 부족한지 반복해서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6모 1등급 -> 9모 4등급 -> 수능 96점의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 실력이 계산 실수에 묻혀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실수도 실력입니다. 영주쌤 말 잘 들으세요.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 1- 자료가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성적은 좋았지만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수학 7등급을 받았고, 그 날로 백대에 등록했습니다. 수학 실력이 정말 바닥이었기 때문에 백대 숙제를 다 하고 다시 학원에 찾아와서 숙제를 더 받아간 날이 정말 많았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특수대를 지망할 때 수학은 기출문제집을 따로 안 사도 돼서 좋았습니다.
- 2- 질문 할 기회가 많습니다. 쌤들께 미리 연락드리고 질문하러 가면 오히려 열심히 한다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3-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모의고사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빠지지 마세요.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저는 애매한 공대의 길보다 확실한 육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을 여러분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오석쌤 말 영주쌤 말 잘 들으세요



# 육군사관학교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공부하면서 친구들이랑 못 놀러 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SNS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친구들과의 추억은 최대한 학교 안에서 쌓으려고 했다. 11시 야자를 마치고 운동하는 것도 힘들었다. 육군사관학교 지망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낮에는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했다. (학교 야자실에서 11시까지 있었다.) 학교 야자실이 가장 중요했던 요인이다. 정복을 입고 육사 다니는 '나'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국어, 영어, 수학이 가장 중요하고 열심히 했다. 3년 내내 군인이라는 진로를 희망했다. \*수시 준비가 중요.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학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푼 문제집에서 틀렸던 것들을 다시 풀어본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꿀팁을 메모하여 적용해서 풀어본다. 질문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풀어보기.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이 열정이 넘치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 (부담없음) 당연한 말이지만 수업의 질이 뛰어나다. (처음 듣자마자 백인대장 다녀야겠다고 다짐함)  
자료가 많고 언제든지 질문이 가능하다.  
백야, 백대 카페 등의 학습실 이용이 가능하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자신의 목표를 확고히 하고 항상 생각하며 공부를 한다면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 그 목표를 떠올렸을 때 가슴이 뛰고 간절한 마음이 들도록 목표를 구체화하고 상상했으면 좋겠다. 육군사관학교는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체력, 공부, 인성, 리더십 등 두루 갖추어야 한다. 국어, 영어는 2학년 때까지 수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스터 하는 것이 중요하고 3학년 때는 수학을 더 열심히 하세요(특히 이과는) 탐구는 꾸준히!

#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고3때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해야 했어서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다잡기 어려웠음.  
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버리는 시간도 많았고, 시간을 버렸다는 것에 공부할 의욕이 떨어짐.  
좌절하면서도 계속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며 의무적으로 백야에 오려고 했고, 백야가 열지 않을 때는 근처 독서실을 찾아갔음.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수업시간에 집중!! 졸지x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수업 때 끝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듣기.

\*영주쌤 오석쌤 말 잘 듣기\*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쌤들이 친절하시고 학교와 학원 사이 빈 시간에 백야에 갈 수 있어서 공부흐름이 끊기지 않아서 좋았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100% 학종이었기 때문에 수능은 최저를 맞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모의고사도 내신 공부한 것 만으로 크게 굴곡없이 상위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능장에 가서 시험을 봐보니 심하게 긴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의 압박감 때문인지 각 과목당 평소보다 2~3문제씩은 더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수능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ㅎㅎ

#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친구들, 게임, 놀기 (다양한 유혹들) 공부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친구들 문제나 게임과 같은 유혹들을 뿌리쳐 내기가 힘들었다. 공부할 때 특히 시험기간에는 정해진 시간 아니면 핸드폰을 꺼 놓았다. 놀 때는 공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다 풀기!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기! 저는 하루 종일 1달씩 공부만 하면 효율도 오르지 않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성격이라서 오히려 노는 시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공부할 때 집중은 안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기 때문에 놀 땐 과감하게 놀고 공부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무작정 어려운 문제를 풀기만 해서는 안된다. 쉬운 문제들, 숙제를 통해 개념이나 스킬이 잡혀야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비교하지 말고 꾸준히 자기 공부만 할 것. 언젠가는 실력이 확 늘어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ㅎ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백일대장&백대모의고사 : 하루에 정해진 문제를 일정하게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 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백대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딱 좋았다. 내가 취약한 부분이 뭔지 알 수 있었다.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문제를 원하는 만큼 풀 수 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백인대장 숙제 열심히 하세요. 수평잡기 같은 책은 어려웠던 문제 한번씩 더 보는 것도 추천해요! 수능대박, 수시 대박나세요 :) (본인이 수시로 대학을 갈 생각이더라도 무조건 정시공부를 놓아버리면 안됩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고3이 되면서 모의고사 등급이 많이 떨어졌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성적이 떨어지니 다시 올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좌절을 하곤 했다. 하지만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학교 시간표처럼 시간을 정해두고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지키며 공부하였다.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번 공부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적은 양의 문제들을 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틀린 문제를 오답 정리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찾아서 풀며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께서 대부분 제공해 주셨고, 백인대장 스토리 카페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며 질문이 생길 시 바로 질문하러 갈 수 있었다. 또, 교무실에서는 모르는 선생님께 질문해도 친절히 답해주셨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백인대장 교재를 잘 활용하고, 특히 백대 카페를 많이 이용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 연세대 기계공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9월 때 모의고사 성적을 완전 망쳤을 때 재수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면서 이겨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꾸준함, 성실함입니다. 저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플래너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6시까지 학교에서 야자를 하면서 졸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이 다짐만큼은 예비소집일 전날까지 지켰습니다. 집 가서 하겠다, 독서실에 가서 하겠다 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학교가 결국 수능 고사장이니, 학교에서 익숙해져야 하고, 독서실이 조용해서 더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수능고사장은 그 정도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꾸준히, 성실히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같은 유형의 문제를 몇번씩이고 반복해서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과구원에서 엄청난 양의 수학교문제를 푸는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더보스, 파이널보스와 같은 자체 제작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 성균관대 공학계열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성적의 기복이 심한 것이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답률이 높은 부분을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왜 틀렸는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메꿔갔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논술 시험장에 가서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연습장에 풀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지에 쓰는 방법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 번 정리하면서 제 답의 틀린 점을 수정하면서 답지를 적어 나갔습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일단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수학 단원의 꿀팁 이런 것들을 배우고 풀이를 시작하는 방향과 유형을 정리하면 수학 단원과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이 숙제 관리를 잘해주시고 늦게까지 남겨서 열심히 공부를 시켜주십니다.  
어려운 단원에 대한 프린트 정리도 잘 되어있고 풀 문제가 많습니다.  
백대 모의고사는 꼭 챙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숙제만 다해도 대학 갑니다! 숙제 꼭 다 하세요! 하라는 것만 하세요! 모의고사 꼭 보세요!  
(\*어느 정도의 게임은 실력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중앙대 동물생명공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주변 환경을 통제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강력한 의지로 이겨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이뤄내고 싶다는 의지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을 통해 기초를 다져가며 그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께서 한명한명 너무나도 꼼꼼히 오답분석, 접근방향 등등을 해주셔서 문제 이해도가 높아졌고 그것을 토대로 공부를 해나가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1년만 꼭 참고 꼭 원하는 대학 가서 꿈을 이뤄내길 바란다.

# 건국대 시스템생명공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오래 앉아있기.../시간 재가면서 점점 앉아있는 시간 늘리기.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도 참으세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니깐 그냥 앉아서 공부하세요... 안 하면 후회한다 진짜로..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틀린 문제 2~3번씩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기, 오래 앉아있기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모의고사 많이 풀어 보기, 오답노트 만들기, 다양한 풀이법으로 문제 풀기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백인대장 모의고사 꼭 풀기♡♡ 백일대장 푸는 것도 도움 많이 됐고 특히 이과구원 수업할 때 성적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숙제 꼭 해가고!!! 모의고사 꼭 풀고!!!!!! 100분동안 화장실도 가지 말고 앉아 있으세요~



# 고려대 전기전자공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공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 공부하면서 대략적인 제 최대 학습량을 체크해서 1년 전체계획을 큰 틀로 짜놓고 공부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기출을 꾸준히 풀고 파이널 기간에 스피트를 올린 것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푼 문제들을 반복해서 다시 풀면서 적어도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의 내용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어서 어떤 발문이 나왔을 때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진인사대천명”

#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중학생 때에 비해 고1, 고2때 수학공부를 거의 하지 않아 고3 수험생활 할 때 그 격차를 줄이느라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과는 수학이 중요한데, 수험생활 시작하고 나서야 제대로 공부를 해서 좀 고생한 것 같아요. 개념 정확히 숙지하고, 시간 날 때마다 수학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고난도 문제들은 복잡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가 많으니 최대한 하나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성공이라기엔 아쉬운 부분도 많긴 한데 고3때 공부했던 것에 후회는 없어요. 그래도 그만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냥 꾸준하게 했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많이 지치고 1년동안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3점짜리 문제는 아무래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유형이 대체로 비슷해서 기출 많이 풀고 기본적인 내용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아요. 4점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고, 실수를 줄이는 게 좋지만 20, 21, 29, 30번과 같은 고난도 문제는 흐름을 이해하고, 많이 생각해보고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집중을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잡아주고 도와주셔서 좋았어요. 큰 학원이라 자료도, 정보도 많은 편이고 질문하면 받아줄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수학문제 질문도 많이 하고, 수험생활에 필요한 조언들 많이 얻어가세요. 백대 쌤들한테 혼나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고치고, 힘들거나 할 때 도움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고1, 고2 친구들이 이걸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수험생활은 고3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고3 친구들은 늦은 거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보세요. 수능 대박이 본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암튼 힘내세요!

# 서강대 경영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독학재수를 했어서 외롭고 체력이 약해지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1년만 버텨서 좋은 대학 가자는 마음으로 버텼고 자기 전에 30분씩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체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또 아침에 국어 공부를 하는게 졸려서 힘들었는데 졸릴 때마다 커피를 마시거나 서서 공부를 하면서 잠을 깨려고 노력했어요!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공부시간을 많이 늘려서 자습시간을 많이 확보한 것이 성공요인 같습니다! 그리고 틀렸거나 헛갈리는 개념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보고 외웠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인강을 듣거나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끝난 뒤 혼자 복습하면서 자습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수학은 일단 공부량 자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에서 항상 실수 하는게 많았어서 쉬운 문제들도 실수하지 않게 푸는 연습을 많이 했고 하루에 기본 5-6시간은 수학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헛갈리는 개념은 나중에 보겠다고 넘기는 습관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면 또 까먹기 때문에 헛갈리는 개념은 최대한 빠르게 잡고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백대를 다닐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고 수학자료들이 풍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던 게 가장 도움이 됐어요!  
또 백야에서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쌤들을 찾아가서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다같이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실전 연습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수능 전 시간이 많을 때 공부를 꾸준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역일 때 공부를 많이 안했던 것이 후회돼서 바로 재수를 결정했는데 다시 고3때로 돌아간다면 재수 때 했던 만큼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주변 친구들이 옆에서 놀자고 했을 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절 할 때 가장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오직 미래의 나를 위한 것임을 항상 생각하고, 혼자 힘든 것이 아닌 수험생 모두가 힘든 것이므로 같은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더 공부하면 안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꾸준함, 수험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수학을 공부했고, 너무 하기 싫은 날에는 틀린 문제 오답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뛰어난 선생님들과 그에 걸맞는 실력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선생님을 믿고 따르세요!

# 인하대 아태물류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다른 사람들은 성적이 오르는데 나만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 신경쓰지 않고 제 자신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끊임없는 집중력과 노력입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킬러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준킬러 문제에도 신경 써서 시간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백야를 다니면서 가까이 계시는 선생님들께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선생님들 믿고 따라주시고 백야 꼭 다니세요!

# 전북대 의예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공부하면서 게임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어서 집중이 잘 안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은 몇 주에 한번씩 하고 싶을 때 해서 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고 싶은 욕구가 억제되어 오히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유튜브는 진짜 끊기 힘들어서 구독하는 것 중 몇 개만 골라서 보고 끄는 식으로 했어요. 수능 끝나고 놀 시간 충분히 많으니까 수능 끝나고 할 거 다 한다는 마인드로 공부하는 것도 좋았어요.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고3 시작할 때는 여유롭게 놀면서 공부하다가 수능 100일 남았을 때부터 압박감을 느끼고 공부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0일 남았을 때 사설 모의고사를 봤는데 완전히 망해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시기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자극을 받게 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세요.

## 3. 수험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모의고사 볼 때 순서대로 푸는 편이었는데 18번까지 푸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20분 안으로 풀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해서 못 풀 문제들을 나중에 푸는 것도 진짜 많이 도움됐어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런 감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한석원 모의고사나 서바이벌 등 유명한 모의고사들을 다 풀어봤는데 개인적으로 백대 파이널 모의고사보다 좋은 거는 못 봤어요. 이것만큼 어려우면서 기출 트렌드를 정확하게 반영한 모의고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오답만 제대로 해도 1등급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수능 전에는 못 느꼈는데 보고 나서 수능 시간 전체 동안 집중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물리 볼때까지는 완벽하게 집중하다가 생명 볼 때 긴장감이 다 풀려서 그 과목을 망쳤어요. 수능 볼 때 만큼은 꼭 모든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서울대 의예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첫 번째로는 집중이 안 되고 공부하기 싫었던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겨내지는 못했지만 하루살이 느낌으로 하루 하루 최악만 면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의지를 다지거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하루도 못 가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성적이 안 나오고) 망했다는 생각이 들 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포기 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한 바탕 난리 치고 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계속 나아가는 것 밖에 없었니까... 그냥 묵묵히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중독성이 너무 강하지 않은 선에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중간고사에서 3등급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 포기 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특히 서울대 면접 전날에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생기부에서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이런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묵묵히 나아간 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 종이라는 전형에서는 자신의 장단점,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강점인 부분을 어필하려고 노력한 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탐구의 전문성이나 활동의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강점인 분야나 부분을 자소서와 면접에서 어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사고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조건을 보고 필요한 사고를 빨리 하기’ 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들이 왜 이 조건을 보고 이 생각을 하는지 배우고 스스로 그렇게 사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원내접삼각형에서 선생님이 변의 길이를  $2r\sin\theta$ 로 두시는 걸 보고 ‘왜 변의 길이를 저렇게 뒀는지, 저렇게 두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왜 이득인지. 왜 저렇게 표현하는 게 주어진 조건에서 구하려는 값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한 상황이면 ~하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를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습관을 교정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삼각형 넓이는 항상  $1/2 * (\text{밑변}) * (\text{높이})$  순으로 구하는 습관을 들인다던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선생님들의 실력이 정말 좋으셔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1:1로 질문도 받아주셔서 의문이나 모르는 문제를 배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 중에는 오직 백대에서만 배울 수 있는 내용들(주로 계산을 적게 하는 법이나 특이한 해결책)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백인대장 모의고사 등 자체 컨텐츠들이 있어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현 기초의 수능은 기출분석보다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아무리 일이 안 풀리고, 다 포기 하고 싶어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묵묵히 나아간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재능러 제외). 저도 중간고사에서 3등급 두개씩 뜰 때마다 다 포기하고 싶었고, 수능 전 유일한 수시 1차 발표였던 연대를 1차에서 떨어졌고, 서울대 면접 전날 생기부에 모르는 게 많아서 + 카대 1차 탈락으로 다 포기 하고 싶었습니다. 노력이 성공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 고려대 데이터과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유튜브에 시간을 과소비하는 습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하다가 밤 10시가 되면 새벽 1시까지 유튜브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9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으며, 추가적인 학습시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기존에 10시까지 공부하던 것을 12시까지 늘렸고, 남은 1시간에는 2배속으로 동영상을 보며 공부시간을 확보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주변에 있는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제 성공요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공부에 의욕을 얻을 수 있었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입시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게임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PC방을 종종 다니던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시간 여유가 생겼고, 게임에 쏟던 시간을 공부에 쏟게 되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게임하는 학생 있으면 고3 때만큼은 하지 마세요! 입시 끝나면 매일 12시간씩 할 수 있어요.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복습과 스스로 문제 바꿔보기가 중요한 거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어떤 부분이 힌트고 핵심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면서 풀 수 있을 거예요!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일정이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면서 스스로 몰랐던 습관과 태도를 파악하고, 바르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이 끝나고 궁금한 문제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을 질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찝찝함 없이 매 수업 시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나 뽑자면,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저도 9모 때 12133이 떠서 되게 걱정하고 불안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수능 때 올 1 나왔어요! 결국 사람들은 수능 점수만 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잘 봤어도 자만하지 마시고 못 봤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미화됩니다.



#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먼저 스마트폰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한번 인터넷 앱 열면 끝까지 보느라 몇 시간 날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시간관리 앱을 설치해서 집에선 아무 앱도 못 열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 놀고 떠들 때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노력하세요. 의식적으로 마음을 먹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잠” 1시까지 독서실에서 하고 6시 기상이면 꽤 고됩니다. 그래서 커피로 돌려 막고, 하고 후 집에서 1시간 이상 잤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학교에선 안 졸 수 있어요, 안되면 서서라도 들으세요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수시에 투자를 꾸준히 했던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수시 지원할 때는 All 사항, 소신은 안돼요... 저도 추합 하나돼서 겨우 들어왔습니다.

## 3. 수학기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풀이를 하시면, 스스로 무엇을 몰라서 틀렸는지를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렇게 들으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각인이 더 오래가고, 집중도 잘하여 안 졸 수 있어요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독서실: 쾌적해요. 조용히 방해 안받고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료!!  
컨텐츠: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양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입시 준비하며 수능용으로 외부교재 안 샀어요.  
선생님: 수업 퀄리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최고입니다.  
질문하기: 수업 전후는 물론, 다른 날에도 찾아가서 질문할 수 있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질문이 많아도, 무서워 보이는 쌤도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3학년 커리의 시작인 “00구원”때 과제가 급격히 증가해요. 그때 계속 다니고 숙제 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강보단 타이트하지만, 아주 빠르게 개념 끝낼 수 있고 문제풀이도 가능해요. 그리고 수시 2점초면 도전하세요!  
P.S. 신정점은 모기 조심하세요... 한겨울 빼고는 늘 보여요...

# 해군사관학교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공부 잘하는 친구들마저도 졸음을 이기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저는 고등학교의 3년 생활 중 고1, 2 시절에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수업 시간마다 계속 졸았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고3 때 정신을 차려 고1, 2때보다 더 많은 수면시간을 확보하려 하였고,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뻘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수면시간만큼은 꼭 지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실제 시험장 그리고 면접장에서 긴장 없이 지필고사, 체력검정, 면접을 응시한 것이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긴장감을 갖고 시험을 응시하는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원래 실력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문제를 꾸준히 다양하게, 많이 접해보는 것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수학 공부를 대충 한다면 감각이 무뎠지게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압도적인 자료와 문제집, 뛰어난 선생님들의 강의가 무엇보다도 좋았습니다. 모르는 문제나 궁금한 점들을 신속하게 질의응답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THE BOSS 과제는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수능에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난도 높은 문항들이 종종 있지만, 모두가 수능 준킬러, 킬러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사고 방향을 이끌어주는 포인트가 존재하며 실제 수능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에 따른 성취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밑바탕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불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 서울대 건축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복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공부에서 특히 수학에서는 내가 푼 문제더라도 혹은 모르는 문제일 경우 조언을 구하여 풀이를 배우고, 또 다른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 과정에서 복습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같은 문제, 같은 상황을 다시 풀고 정리해야 하므로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를 얻어 갈 것이 많은 문제들을 선별하며 복습하는 방식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고1~3학년동안 게임과 SNS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게임이나 카톡 등 SNS로 인해 공부시간을 빼기거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SNS, 그리고 게임을 하지 않아 양질의 공부를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나의 풀이만 고집하지 않고 선생님 혹은 조언자분들의 해설을 참고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풀이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자신의 수학 실력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이 딱딱하게 이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온 문제들을 많이 질문을 받아 해결할 수 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따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성격인데 이런 수업을 통해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3 준영쌤과 세환쌤 수업 모두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공부를 할 때는 계속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축구였습니다. 축구를 통해 공부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후배님들도 공부에서 지칠 때, 스트레스를 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세요. 공부는 그리고 입시는 장기적인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텐데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

#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매일 똑같이 사는 것(학교 → 학원 → 집)

이겨냈다고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잠깐동안만이라도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집에서는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집중했을 때 최대한 많은 것을 하려는 의지, 교내 활동에 거의 다 참가하려고 한 마음가짐, 잘 될거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다시 풀어보기(복습), 틀린 거는 다시 풀며 다음에 봤을 때 모르지 않게 하기, 맞은 것 중에서도 새로운 풀이를 알고 싶거나 애매했던 것들 표시하고 다시 풀어보기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스터디 카페가 있다는 점,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것, 상담할 때마다 정성껏 많은 말 해주신 것.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다들 1년 짧은데 그것도 못 참냐고들 하지만 저는 길게 느껴졌고 힘들었어요. 자신이 현재 힘들면 다들 그런데 나만 오버하는거 아닌가,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나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 서울대 수학교육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실수, 멘탈 시간관리 등 “현장감”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9월 모의고사에서 어이 없는 실수로 14점을 날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등급을 받기도 했었고, 그 뒤로는 시간 압박 때문에 쉬운 문제도 빨리 생각해내지 못해 제 수학 실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제가 자주 하는 실수를 모아둔 실수노트를 쓰면서 이겨내고자 했고, 시간 압박은 <백일대장>을 풀면서 적응해 나가하고자 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서류 점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긴 했는데, 지원한 과에 비해 내신 성적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형이 학종이었다 보니 학생부를 쓸 때 진로와 많이 연결 짓고자 했던 것이 서류 고득점의 비결이지 않았나 합니다. 예를 들어 전교생 공통 활동이었던 <인종차별에 관한 영화 관람>을 한 다음, 인종차별이라는 주제를 이어 영어교과서 속 모델의 인종 비율에 대한 통계를 내고, 이를 통해 진로 분야인 교육에 대해 탐구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으로 연결 짓는 식이었습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고민’입니다. 저는 학원 숙제를 받으면 숙제를 하는 데에만 보통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씁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고민해 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기출에서 자주 다뤄지는 논점에 대한 일관적인 풀이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확률과 통계에서 3의 배수에 대해 다루는 문제가 나오면 1, 4, 7, ... 은 네모, 2, 5, 8, ... 은 세모, 3, 6, 9, ... 는 동그라미 기호로 나타내 푸는 일관적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4. 백일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선생님과 소통이 잘 되어 좋았습니다. 제 풀이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더 좋은 접근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어 좋았고, 학교나 다른 학원에 비해 강의력이 좋으셔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더보스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백일대장이나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능날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잘 해냈던 건 아마도 그 덕분일 것입니다.

## 5. 백일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진인사 대천명은 진리입니다. 실력이 여태껏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6/9월 모의고사를 망쳤을 수도 있고, 실수가 급격히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은 보이지 않게 늘어나고, 6/9월 모의고사를 망치고도 수능을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며, 저처럼 수능 당일에서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약점을 잘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은 하시되, 멘탈이 휘말리지는 않게 하세요. 충분히 노력했다면 분명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 경희대 한의예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잠과 체력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체력도 약하고 잠도 많아서 내신기간이라도 5시간 이하로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그냥 많이 자는 것이었습니다. 내신 2주부터는 5시간씩 잤고 고3때는 6시간 반에서 7시간씩 잤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시간에 집중력이 훨씬 높아져서 5시간이나 4시간씩 잘때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것 같을 때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적이 안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확 오르기 위한 바탕입니다. 본인이 공부한 것은 절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수시와 정시를 같이 준비한 것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해도 내신 등급은 안 나오고 모의고사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훨씬 높았는데 왜 내신을 챙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특히 3학년 1학기 내신) 그렇지만 주위에서 정시는 불안정하다고 선배들 사례를 들으며 계속 협박해서 울면서 3학년 때 내신도 챙기고 비교과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능날 평소보다 훨씬 실수하고 시험장 종도 잘못 올리는 바람에 폭발하고 수시로 왔습니다. 원래부터 정시만 하던 후배님들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 아무리 잘 나와도 그 점수가 수능점수가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꼭 둘 다 챙기세요.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처음에는 제가 수학을 굉장히 못해서 썬이나 일품 수준의 문제를 양치기 해서 속도를 높이고 기본 실력을 쌓았습니다. 또 틀린 문제는 계속 풀어서 풀었던 문제 중에서는 못 푸는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단계 올라왔다고 생각한 후 킬러문제를 접했습니다 킬러문제는 문제를 양치기 하기보다는 한 문제에 어떤 개념이 활용되었고, 어떤 스킬을 이용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는지를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스스로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평가원 킬러 문제들을 접하며 '아이디어' 들을 많이 접하면 변형 문제나 사설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들도 쉽게 풀립니다. 또 기존에 접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문제는 오답노트에 정리해서 반복했습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진짜 잘 받아 주십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직접 질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핸드폰으로도 잘 받아 주십니다. 매주 모의고사(고3)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3되면 모의고사를 진짜 많이 풀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퀄리티이고 무료로 모의고사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 개발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더보스 같은 자료는 어려운 문제 연습하기 좋습니다. 또 백인대장은 실수하기 쉬운 문제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수능 다가올 때 실수 고치는데에 굉장히 도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코멘트 달아주시면서 풀이과정 체크해주시고, 더 좋은 풀이 있으면 적어 주시는게 문제 푸는 속도 올리는 데에도 좋았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보상받을 거예요! 수시 다 떨어지면 정시가 대박날거고, 수능 망하면 수시로 붙을 거예요! 대학 붙으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도 좋긴 좋아요! 백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 때는 선생님들 상담도 잘해주시니까 그냥 버티고 공부하세요!

# 서울대 사회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공부하기가 죽도록 싫은 날이 자주 찾아오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뭘 해도 집중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틀 정도 아무 생각 안 하고 놀았습니다. 슬럼프는 오면 그냥 받아들이고 쉬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수시 내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저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이든지 상관 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서 했습니다. 공부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항상 집중하고 열정을 다한 것이 저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오답노트입니다.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점 보완 → 실수 안하기 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나은 솔루션은 오답노트라고 생각합니다. 학원교재의 경우 페이지를 말하면 뽑아 주시니 그를 이용해 오답노트를 하고 자주 읽고 풀면 어느새 발전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본인만 노력하면 수학 실력 쌓기가 용이함  
이 학원 독서실 + 주독야독: 중3겨울~ 고2 여름방학마다 시설 이용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음. 주독야독 꼭 하세요!!!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포도당 캔디를 항상 소지하세요...^^

그리고 힘들면 쉬는 게 나아요. 괜히 번아웃오면 슬럼프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파이팅!  
수시 자소서 쓰는 것 최대한 일찍 쓰고 2주~1달 뒤에 다해보세요.

# 고려대 의과대학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저는 체력이 약한 편이어서 체력과 의 싸움을 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수능이 몇 주 남지 않았을 때도 꽤 늦잠을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겨내는 방법은 저도 끝까지 찾지 못했는데, 다만 15시간 동안 80% 집중하느니 10시간 동안 120% 집중한다는 마음으로 집중도를 올리는 게 최선입니다. 또 차라리 봐야 할 걸 좀 못 보고 수능을 칠지언정 무리해서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것은 절대, 절대, 비추합니다.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공부는 실력 향상에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잠을 줄이기보다는 집중도를 높이고 공부 외적인 시간을 줄이세요!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첫째는 내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학년까지 공대가 목표여서 생기부가 완전히 공학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의대를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신 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여러분이 지망하는 과 합격선에만 딱 맞춘다니 보다 항상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높게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참고로 저는 1.02였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잘 보든 못 보든 기말고사는 반드시 열심히 치세요! 생각보다 중간, 기말 모두 잘 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중간을 망쳤어도 기말 때 뒤집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중간을 잘 쳤어도 기말 때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둘째로 중간에 목표하는 과가 완전히 바뀌었다더라도 자소서나 면접, 생기부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어필하면 대학에서도 그걸 꼭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문제 푸는 양을 꾸준히, 많이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패턴이나 방식이 머릿속에 기계화되면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초반 비킬러~준킬러 문제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킬러 접근을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초반에 시간을 많이 남기면 킬러까지 풀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내신도 물론 마찬가지로요. 저는 수능 D-100 부터는 평균적으로 매일 백일대장 하나 + 실모 하나 + 타교재 50문제 정도 했고, 내신은 내신기간 D-25 부터 매일 200문제 이상은 푸는 것 같아요. 수학은 무엇보다도 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최선입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선생님들이 최고입니다. 다들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내신기간 때 항상 질문하고 바로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또 선생님들이 입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응원, 조언해주셔서 공부 외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둘째로 백인대장은 콘텐츠가 탄탄합니다. 수평잡기 내신대장같이 문제 양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콘텐츠도 많고, 또 마스터플랜이나 The Boss 처럼 질적으로 좋은 콘텐츠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인대장 다니면서도 콘텐츠 걱정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백인대장 최고!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가 이걸 왜 하나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저는 그럴 때 첫째, 내신 이든 수능이든 기타 생기부 활동이든 매 순간 최선을 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 둘째, 입시가 인생의 전부라는 당연하지 않지만 인생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만의 공부를 하는 이유, 간단명료한 마음가짐을 만들어 두고 힘들 때마다 항상 떠올리세요 또, 공부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지만 최대한 잊으려고 노력하고, 잠깐 좋아하는 노래라도 들으면서 적당한 행복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이 긴 글을 끝까지 모두 읽어주신 여러분은 올해 입시 반드시 대박 날 겁니다. 파이팅!!



# 동국대 수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주변에 PC방, 코인노래방 등 유혹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학원도 정말 가기 싫고 숙제는 더 하기 싫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주변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쳐다보고 마음을 다잡고 눈과 귀를 막고 나만의 페이스로 열심히 공부했고 계획표를 열심히 작성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끈기, 열정, 몰입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수학이나 국어는 열심히 해도 안 오른다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수학이나 국어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표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바로바로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수 있고 친구들이 실력에 따른 여러 반이 있어서 자신의 실력에 맞는 반에 들어가서 알맞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제가 고3 때 공부의 방향이 헷갈리거나 모르겠을 때마다 선생님께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좋은 길을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백인대장! 믿음의 학원입니다. 모두 좋은 선생님들 밖에 없으니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수학에서만큼은 분명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오면 정말 미친 듯이 놀 수 있다.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이고 놀다가 지겨울 지경입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때 후회 없이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 연세대 화학과 / 포항공대(학종)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고3 때,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은 다 했습니다.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ㅎㅎ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항상 수학, 화학만은 끝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매달려서 고민, 고민 끝에 알아가는 그런 희열을 맛보기 위해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해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들을 사고하면서 일반화를 한다든지 어떤 원리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는 습관들이 논술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포항공대 학종 - 화학 하나만으로 생기부를 지조 있게 밀고 나갔고 관련 대회, 프로그램을 모두 화학으로 풀어냈던 게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생각하고 분석하고 일반화하며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을 하나하나 꼼꼼히 노트에 써가면서 쓰면서도 쓴 것과 쓰고 있는 것 쓸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과정'과 '흐름'에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어떤 문제든 쉽게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과정 & 흐름 그리고 생각"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고3 때 이준영 선생님과 오세환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수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적당한 스피드와 깊이, 또 양천고 친구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문제들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분위기, 서로 알려주는 분위기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가 너무 좋았어요. 콘텐츠도 풍부하고... 백인대장이 특히 당시에는 못 느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최고의 콘텐츠!!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애들아 백인대장을 믿고 버텨라.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린단다.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잠도 많이 자야 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항상 겸손해라!

대학가는 거 의외로 별거 아니다. 나 논술 준비 하나도 안하고 강 써서 붙은거다!

(인생사 새옹지마 SO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렴! 고1, 2 때부터 최선을 다 하도록!)

# 항공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성과 안 따라주는 몸의 괴리감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하자는 생각을 버리고 백인대장 수업이라도 따라가자는 마음을 먹으며 이겨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백인대장에서 수업받을 때 강의 시간이 길다 보니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 글 쓰는 기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해하려 하는 시도가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백대 수업을 따라가기만 해도 절반 이상을 성공한 것이다.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학을 일주일을 놓으면 한 달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수학을 잠깐 놓으면 문제에 대한 감을 잃어버린다. 수학은 꾸준히 하는게 좋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쌤들이 모두 각자의 특색이 있어서 수업을 하면서 나오는 그 특색을 보는 맛 덕분에 수업시간이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백대 수업을 따라간다는 마인드로 잘 버티면 수학은 큰 걱정 안해도 된다. 모두 파이팅!

# 건국대 건축공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공부했던 만큼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은 양의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데 풀 때마다 원하는 성적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점수를 보고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수능과는 독립시행이라는 마인드로 저를 합리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논술 공부를 같이 병행한 것이 저의 성공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논술로 대학을 가긴 했지만 저는 정시를 노리고 공부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 논술 공부를 저절로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과 정시공부를 따로 하기 보다는 수능수학 오답노트를 쓸 때 논술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쓰려고 노력함으로써 논술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어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수학 공부에서는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저는 복습이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문제집, 학습지 등 풀어서 틀린 수학 문제들을 모두 오답노트를 쓰고 다시 복습했습니다. 또한 수업 때 백대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풀이법 등을 필기하고 복습하면서 체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저의 수학공부 비결인 것 같습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많고 좋은 문제들과 “이기는 수리논술” 수업이 가장 좋았고 친절하신 선생님들께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고3 기간을 지내시는 동안 다들 조금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 고3이 돼서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조금해지면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법들이 맞는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하게 되는데 수능은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법들에 확신을 갖고 우직하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앙대 기계공학부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저는 잠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라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잠을 줄여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낮잠으로 그 부족한 잠을 채우게 돼서 이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잠을 줄이는 대신에 깨어있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아끼며 공부하기로 생각했고 이 생각을 통해 잠이 많다는 걱정을 간접적으로 이겨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한 풀이과정으로 풀려고 노력한 것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제라도 답이 도출되는 과정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른이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도 함께 했던 것이 논술을 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저는 수학 문제를 보고 무작정 적기 시작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풀이 과정을 미리 떠올리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데에 시간이 좀 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답률과 시간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질의응답도 받아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더 쉽게 알려주고 노력하셔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고, 제가 큰 도움을 받은 것도 그 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항상 입시관련 정보나 바뀌는 점들을 발 빠르게 전해주셔서 큰 혼란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것도 큰 것 같습니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시험공부를 할 때는 진짜로 너무 힘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지만,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면 공부할 때 조금씩 버려지던 자투리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1번에서 적었던 내용처럼 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눈치를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잠이 많아서 단순히 잠을 줄이라는 말을 듣는 대신에,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힘이 들겠지만, 주변의 평가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좋은 결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놓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 학원에 와서 하면 그럭저럭 참을 만 했음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논술 시험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나와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숙제를 할 때 쉬운 문제도 거르지 말고 전부 풀 것  
오답은 바로 할 것. (미뤄서 몰아 하지 말 것)  
어려워 보이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10분 정도라도 잡고 생각해볼 것  
복습은 꾸준히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문제를 풀 때 motivation을 알려주심으로써 풀이 방법을 다른 문제에도 적용하기 용이하게끔 알려주신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교육과정 내에서 제대로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  
자습실이 있어서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다.  
질문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운전 중에도 친절하게 답해주신다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듣고 실천하기만 해도 수학 1등급은 가능하니 꼭 그러길 바란다.

# 인하대 의예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체력의 한계 + 강박적 공부 → 우선 체력의 한계의 경우 저는 수능이 끝날 때까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만 있고 부실하게 먹다보니 수능이 다가올수록 몸도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 많이 걷고 틈틈이 운동하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10월쯤 되었을 때 공부시간에 있어서 약간의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조금만 편하게 하자' 라고 생각하고 평상시보다 3시간이나 덜 했음에도 실제 공부량은 거의 같았다는 것을 깨닫고 수능 때까지는 양보다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공부시간은 대입에서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백대에서 쌓은 탄탄한 수학실력? ㅋㅋㅋ 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 편안한 마음  
인하대 논술이 가장 마지막 논술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너무 졸려서 가지 말까 수천 번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가서 붙었네요... 대체로 의대 논술은 수능 보단 훨씬 난이도가 높고 유연한 사고를 요합니다. 그런데 긴장은 생각을 경직되게 하죠. 그러니 '난 여기 어떻게든 붙고 말테야!' 보다는 붙어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히 보세요!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1번과 약간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푸는 문제의 양이 매우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생적으로 실수를 잘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실수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늘 이상한 번호를 틀리곤 했는데 7월 모의고사 이후 문제를 왕창 푸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완벽히 극복하지는 못해서 수능에서 97점을 받았습니다) 파이널이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텐데 그대 너무 퀄리티를 다지며 거르지 말고 푸는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백인대장의 다양한 콘텐츠: 수평잡기, 백일대장, 더보스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학실력을 탄탄히 하는데에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기초 겨울방학때 숙제가 무척 많을텐데... 밀리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하세요!!

백인대장 선생님들: 우선 수업이 정말 좋고 늘 학생들에게 열려있어서 입시과정에서 학생들의 멘탈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ㅎㅎ

백대카페: 고3 1년은 정말 제 집보다 백대카페에 더 오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쾌적하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 애용하세요!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음... 제 짧은 1년의 입시 공부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노력은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본인이 원하는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본인의 노력과 공부에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면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파이팅하세요!!

# 한양대 정보시스템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9월 모의고사 이후,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지루함과 이로 인한 피로감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와 논술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논술 경쟁률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D-50 대신 '오늘이 만약 D-30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공부는 무엇일까?' 를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장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이것만 하면!' 이라는 생각을 세뇌시켰달까.. 사실 이겨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마지막까지 정신줄 놓지 않고 수능 본 것을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좋아하는 친구들과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저에게 선생님들의 강의는 각 과목에 대한 확신을 주는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 자신의 공부에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힘내며 공부한 것도 끝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걸 기본적인 습관이지만, 플래너를 쓰는 것 또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부가 잘되는 날에는 체크를 우당탕탕 해가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날에는 그전에 써왔던 플래너들 보면서 자극을 받는답니다. 당근과 채찍... 일석이조 감성입니다...

## 3. 수학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교재와 강의를 찾아 수업에 집중하고 복습하는 것.

CP와 이 교재에 실린 문제 하나하나가 진웅쌤의 큰 그림의 조각들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모두 다시 풀진 못하더라도 스스로 선생님의 풀이를 떠올릴 수 있는지 생각하고 나서 다양한 난이도의 많은 문제들을 풀며 실력 발휘를 하는 겁니다.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교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백일대장!

저는 수능 전날에도 백일대장을 풀었습니다. 백일대장은 '감' 유지에 정말 적합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확통, 수1, 수2를 골고루 배치해서 과목별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매 회차 어려운 문제들도 꽤 있고 잊어버릴만한 개념들을 끄집어 와서 마지막에 혹시나 하는 개념과 스킬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백인대장 선생님들은 수학을 정말 잘하시고 잘가르치시고 유쾌합니다. 그들을 따르세요...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수능 전날에 후회하지 않게 빌드업 잘 하십시오!

코로나 걸리지 말고... 감기도 걸리지 말고... 홍삼 먹으세요... 아이패스...

다들 파이팅^^



# 고려대 기계공학부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힘든점:

체력 → 커피등 에너지 드링크 섭취하며 최대한 버티, 정 힘들 때만 10분씩 낮잠

게임, 유튜브 중독 → 휴대폰 어플 잠금 앱 3개로 공부에 방해될만한 것들을 모두 3중으로 잠금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힘들다고 때려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것

모자란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보완한 것에 희열을 느낌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기출분석 - 1.5순위

N제 - 1순위

체화(완벽한 이해와 응용)-0순위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모르는 문제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질문할 수 있었던 점

수능 대비와 내신대비 모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준비할 수 있었던 점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공부하다가 죽을 일은 없으니 열심히 하세요

사소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인생사 아무도 모릅니다

# 연세대 생화학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수면시간관리(기상, 졸림)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수능 직전까지도 저에게는 가장 힘든 숙제였던 거 같아요! 친구들과 과 내기를 하기도 했었고 알람을 7개 이상 맞춰놓으며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는다면?

6, 9월때 주과목에서 흔들렸고 어찌 보면 저에게는 망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성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능 직전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며 루틴대로 공부하려고 했던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 1 21, 29, 30을 제외한 나머지 2, 3점짜리를, 또한 준킬러들을 다 맞는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 2 킬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못댄다고 해서 버리면 안돼요 진짜 T
- 3 기출을 완벽할 정도로 계속 훑었습니다.
- 4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수학을 1년 내내 좋아하면서 문제를 즐기면서 풀었던 것이 비결인 것 같아요!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마스터 플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수능에 준킬러나 킬러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기출+ 변형) 접하고 연습해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이준영 쌤의 경이로운 풀이 방법까지 모든게 좋았습니다.  
 “백일대장” 준킬러(특히 확률, 도형)을 대비할 수 있었다는 점, 매주 선생님이 코멘트를 남겨주신다는 점 → 보완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준영쌤, 세환쌤 감사합니다 TT)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제발 유튜브 멀리하세요.. 남은 날 동안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후회 없이 공부하세요! 파이팅!!

# 고려대 가정교육과

## 1.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었나요?

딴짓의 유혹! 버티기 힘들죠. 특히 저는 핸드폰을 좋아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하루 몇십 분 이렇게 정하고 그 시간이 넘기면 잠기에 설정했어요. 독서실에도 들어갈 때 폰을 제출했어요. 아예 폰을 없애는 게 최고이니 없애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체력도 저질이 되는 게 느껴져서 싸이클을 타며 고려대 응원가를 듣거나 새천년 체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잠의 유혹! 편의점에서 파는 호울스(초록색 맛)를 1개씩 씹고 너무 졸리면 3개씩 먹었어요. 작은 사탕이나 필통에 넣어 다녔고 거의 1년간 10통은 먹었을 듯하네요. 최고!

## 2. 자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본다면?

학교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내신도, 비교과도, 대외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고1, 2때 시간 있을 때 토클(국어능력 시험)도 준비해서 자격증도 채웠어요. 인문계 고교에서 쓸 수 있는 몇 안되는 자격증이랍니다. 학교 자습시간에 할 일을 시간대별로 정하고 시간을 아껴썼어요. 플래너는 진리입니다! 어디서 시간이 버려지는지, 어느 과목을 덜하는지 다 확인하고 반성하기 좋습니다. 너어어무 하기 싫으면 인강을 들으며 버텼어요.

## 3. 수학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비결이 있다면?

“오답 점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틀렸는지 꼭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 채우세요! 어디가 실수 포인트인지 계속 확인하고 옆두에 두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답노트 예쁘게 만드는 것보단 어디서 실수하거나 막히는지 정리용으로 오답노트 쓰시는 것도 추천해요!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킬러 양치기”를 추천해요! 킬러는 쉬워지는 추세이지만 준킬러 들리면 부질없으니까 4점짜리 꾸준히 푸시면서 감을 잃지 마세요!!

## 4. 백인대장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도움받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께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래서 상담, 질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잘 수용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백대 카페가 있어서 (특히 오픈 스터디룸!) 정말 많이 이용했고 주독 야독 프로그램을 통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신, 수능 모든 자료가 풍부해서 한번도 자료가 부족하던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설 자체가 진짜 깨끗해요!

## 5. 백인대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써 주세요.

중3 때부터 고3까지 한 번도 학원 안 바꾸고 내신&수능 준비 모두 여기서 했어요! 백대에서 뽑아갈 수 있는 장점 다 뽑아가세요!! 고민상담이나 학습계획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세요!! 친절하게 다 답해주시고 빠른 풀이도 얻어 갈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갑갑하고 힘든 수험생활 보내실 수 있지만 저희도 이렇게 잘 갔으니 여러분도 존버! 하나만 기억하시면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다 하면(← 이게 진짜 힘들긴 합니다ㅠ) 진짜 대학 갈 수 있어요!!